

민주통신

<http://ilovekt.org/>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
희망의 빛이 되는 민주통신이 되겠습니다.

KT 전국민주동지회

제19호 2012년 6월 발행처 | KT전국민주동지회 주소 |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0-10 TEL | 02-701-0070 FAX | 02-704-4441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불법적 대포폰 상납 책임지고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kt경영의 난맥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각종 부정적인 기사로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국민통신기업으로서의 자부심도 사라진 지 오래다. 케이티는 작년에 직원들의 잇따른 자살, 돌연사 등이 부각되면서 ‘죽음의 기업’이라고까지 불리며 민영화 이후 진행되었던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인권탄압의 실상을 드러냈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제주도 7대자연경관선정 국제전화투표가 사실은 국내투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국민 사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은폐하기 위한 작업에 사용된 대포폰을 서유열 케이티 홈부문 사장이 직접 개통해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한 바 있다. 이 대포폰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 지시 등 범죄행위에 사용됐다. 이는 명백히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자 국가적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직원들의 사소한 잘못에도 중징계를 들이대던 윤리경영실은 이런 명백한 불법에는 일언반구도 않고 있다.

한편 얼마 전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케이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또한 충격적이다. 5. 21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 실시된 특별근로감독 결과 무급휴일근무 등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부동산 등 자산매각까지 해가면서 1조 4천억원 이상의 당기 순이익을 낸 기업이 직원들에게는 무급휴일근로 등의 임금차취로 33억 1천만원을 미지급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석채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한다. 그 동안 케이티 민주동지회는 케이티에서 무법천지로 발생되고 있는 위법행위 들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진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폭로하기도 한바 있다. 비록 봄주기식 수사로 직원퇴출프로그램 등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부실한 수사이긴 하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그 동안 kt민주동지회 등 내부 민주세력이 벌여온 지난 한투쟁의 성과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케이티는 국민들의 통신비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기면서 해외투기자본에게는 퍼주 기식 고배당을 제공하여 왔다. 그러면서 그 반대급부로 경영진들은 고액연봉을 챙겨왔지만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무급휴일근로를 시키며 차취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법위반을 차치하고라도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러한 케이티의 불법경영의 총체적 책임은 이석채 회장에게 있다. 이회장의 임기기간내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었다. 그리고 실적악화를 부동산 매각으로 메우면서까지 과도한 주주배당에 집착하는 모습은 장기적 경영전망을 어둡게 만들어 케이티의 주가는 현재 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올해에만 벌써 26명(재직자 13명, 58세이하 퇴직시망자 10명, 사내계열사 3명)이 사망하여 국내 대표

적인 ‘죽음의 기업’이라는 오명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석채 회장체제에서 해고자가 속출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연달아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kt는 나몰라라 외면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내며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kt민주동지회는 이러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6월18일부터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이석채회장과 서유열 사장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서초동 본사앞에서는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번 투쟁 이후에도 이석채 회장의 불법, 부실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물리고, kt를 다시 국민통신기업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을 지속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민주동지회 2012년 상반기 활동 보고

- 2월 1~10일 : 노동부 특별 근로 감독 적극 대응(전국)
- 2월 11~12일 : 쌍자희망텐트 1박2일 투쟁 결합 (장소:평택 쌍자)
- 3월 16일 : 주주총회 참가 투쟁 (장소:우면동 연개단)
- 3월 31~4월 1일 : 1박2일 민동회 정기 총회 (장소:유성 유스호스텔)
- 4월 14일 : 故김낙성 동지 추모식참석 (장소:경기도 탄현 기독묘원)
- 4월 15일 : 故김현규 동지 장례 및 발인 참석 (장소:수원연회장)
- 5월 1일 : 메이데이 투쟁 결합 (서울역~시청)
- 5월 4~5일 : 민동회 상집 수련회 (장소:대부도)
- 5월 19일 : 쌍자범국민대회 참석 (장소:서울역)
- 6월 1일 : 창사기념일 불법/부실 경영규탄 기자회견 (장소:광화문)
- 6월 8일 : 민동회 전국대표자회의 (장소:대전 철도노조)
- 6월 10일 : 열사추모사제 참석 (장소:시청, 광화문)
- 6월 16일 : 故오용철 동지 추모식 (장소:강원도 철원)
- 6월 22일 : 서상설 동지 정년퇴임 (장소:잠실)
- 6월 18~29일 : 불법/부실 경영 경영진 퇴진 일인시위
(장소:서초동 법원, 올레사옥)



별첨 : 5월 21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특별감독 결과 ●●●

(주)KT 특별감독 결과 및 조치사항

□ 특별감독 개요

- 감독대상 및 감독기간 : (주)KT 본사, 사업단(53개) 및 지사(118개소) 등 172개 사업장 점검(12.1.30~2.29)
- 감독결과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3.19. 대표이사(이석채) 입건 후 법위반 사항에 대해 5.10 검찰 송치

□ 주요 법위반 사항

<근로기준법>

- 시간외·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33.1억원(6,509명) 과소 지급(입건 수사후 송치, 법 제36조 및 제43조)
- 근로조건 서면명시(46명) 의무 위반(입건 수사후 송치, 법 제17조) 및 취업규칙 변경(11.9월) 신고 미이행(과태료 부과, 법 제93조)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상 조치 위반(61건, 법 제23조), 보건상 조치 위반(16건, 법 제24조) 등 32개 지사장(88건) 입건 수사후 송치
- 특수건강진단 미실시(150명),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 관리비 계상 부적정(21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26건), 건물 철거시 석면 유무 미조사(26건)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4억원, 102개소, 219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성희롱 예방교육(88명) 미실시(과태료 부과, 법 제13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사용사업관리대장 미작성(과태료 부과, 법 제33조)

□ 조치사항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5.10)
-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4억원)

[논평] 지주회사 전환 관련한 소동의 본질은 구조조정이다!

또 때가 된 것인가?

KT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26일자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몇몇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내용인즉, KT가 비밀리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주회사 전환 검토를 마치고 최종 의사 결정만 남긴 상태라는 것이다.

보도가 나온 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조회 공시 요구에 회사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하였으며 노동조합은 마치 해결사라도 된듯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부산떨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구조조정 전야에 벌어지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점을 조합원들은 육감적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IMF 이후 회사측이 수십차례 구조조정하면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치고빼기식 수법을 한 두번 써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측이 언론에 슬쩍 흘리고는 노동조합이 항의하며 확인요청하면 부인하다가 회사가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밀어부치는 인력구조조정의 역사는 이제 하나의 공식이 돼버린 것으로 조합원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완화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되고 오히려 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의결주식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해 금산분리를 강화시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논의 될 시점에 회사측이 가능하지도 않은 지주회사 전환 소동을 벌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있다.

그해답은 구조조정에서 찾아야 한다.

통신요금의 인하 요구와 압박을 피해가면서 해외투기자본에게 막대한 초과이윤을 고배당이라는 형식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을 감안한다면 답은 인력구조조정 밖에 없는 것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성동격서(聲東擊西)라고나 할까..?

당장 가능하지도 않은 지주회사 전환 추진설을 언론에 흘리고 노동조합이 지주회사 전환을 막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회사가 어려우니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소동의 본질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명분은 조직개편이 될 것이고 중복인력을 정리해야한다는 논리가 횡행 할 것이다.

벌써 현장에서는 광역화와 조직 통폐합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들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죽음으로 내모는 인력퇴출이 아니라 불법 부실 경영의 중심에 있는 이석채 회장 등 낙하산체제를 종식시키고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대전환시키는 일이다.

물론 낙하산 체제를 친양 고무하는 어용노동조합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조합원들은 지주회사 전환 소동의 본질을 깨뚫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2. 6. 27

KT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준)

누구를 위한 ‘스마트홈’ 판매할당인가?

스마트홈 줄세우기

케이티에서 영업, 비영업부서를 가리지 않고 상품 강매 및 실적 줄세우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도가 지나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소위 스마트홈 상품으로 불리우는 키봇2와 홈패드에 대해 집중을 넘어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일일보고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별, 팀별 상품판매 실적을 보고받고 이에 따라 줄세우기를 해왔던 것이 케이티의 영업방식이긴 했지만, 특히나 키봇2와 홈패드에 대해서는 매일 판매 실적에 따라 지사장이나 팀장들의 표정이 일희일비하며 그날의 현장 분위기를 결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통신 시장의 변화와 발전의 흐름에 걸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은 자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그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거나 뒤처진다면 현재와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경영진의 고민도 일정 이해가 간다. 그러나 현재 케이티에서 판매되고 있는 키봇2와 홈패드가 향후 케이티 스마트홈 상품의 토대이자 시장 개척의 첨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경영진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시장에서의 고객들 반응 역시 냉담한 것이 현실이다.

‘자뻑’

키봇1에 이어 나온 키봇2는 키봇1의 단점을 보완하고 크기와 기능을 확대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고가의 장난감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실에 있어서도 주 이용자인 아이들의 관심도도 길어야 3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컨텐츠와 기능을 기대하고 구입했던 고객들도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크나큰 차별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며 겨자 먹기로 한 대씩 키봇2를 ‘자뻑’을 통해 떠안은 다수의 직원들은 본인의 거실에 공간만을 차지하고 있는 키봇이 야속할 뿐이다.

홈패드는 기존 태블릿PC보다 저렴한 가격과 인터넷 전화 기능 및 다양한 기능과 어플의 기본 장착 등으로 스마트 단말로부터 소외되었던 계층을 타겟으로 하여 출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애플의 뉴아이패드 뿐만 아니라 삼성의 다른 갤럭시탭들과도 크게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한 채 그냥 ‘조금 싼 갤럭시탭’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을 뿐이다. 이런 조건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이미 아이패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스마트홈 패드를 ‘자뻑’ 하며 겨우 실적을 채우고, 그마저 작년에 한 대 하고 올해도 또 한 대 하는 식으로 별써 2대째 구매한 직원도 부지기수인 것이 현실이다. 윤리경영을 아무리 외치고 허수경영을 근절하겠다고 아무리 경영진이 외쳐대도 서유열 사장부터 청와대에 대포폰을 상납하는 현실에서 직원들에게는 공문구로 느껴질 뿐이고, 지사장과 팀장의 줄세우기가 직원들이 매일 접하는 현실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자뻑’인 것이다.

낙하산경영과 무능력한 노동조합

작금의 키봇2나 홈패드 등 스마트홈 상품으로 불리우는 상품판매 문제의 본질은 늘 그러하듯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무관심한 노동조합의 무책임한 모습과 아직도 무조건 직원들에게 상품 판매를 강요하고 그 실적으로만 줄세우기하면 된다는 그릇된 경영진들의 의식과 사고에 그 원인이 있다.

경영진들이여! 지사장도 팀장도 이해시키지 못하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상명하달식 군사문화로 직원들의 창의적, 혁신적 사고를 고사시키는 모습을 언제까지 방지 할것인가? 낙하산을 타고 위에서 내려 올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다음 낙하산을 타고 올 동지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욕심만 채울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기업운영을 해보라!

그리고 노동조합이여 그대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저 지금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있어달라 다만 또 다른 노사합의로 조합원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기만을 바랄 뿐이다.

KTX민영화 반대운동에 연대하자

최근 국토부 장관 권도엽은 KTX 민영화를 “반드시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강행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적 행보와 광범위한 반대여론 때문에 민영화가 미뤄진 것은 아닌가하는 분석과 기대가 일부 존재해왔다. 그러나 국토부의 거듭된 의지 표명은 결코 KTX 민영화가 물 건너간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깊어지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이다. 이 속에서 정부는 공공서비스 민영화의지를 천명해 해외 자본의 철수를 막고, 전 산업 구조조정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조짐이 그렇듯이, 만약 경제가 급락하면 대선전이라도 신속히 KTX 민영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KT 민영화의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통신이나 철도 같은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투기자본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뿐이며, 대다수 민중들에게는 서비스질 하락과 요금폭등을 낳을 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과 노

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악몽의 시작인 것이다. 따라서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또한 KTX 민영화는 요금인상, 대형참사 인력감축 등을 낳을 전체 노동자, 민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도노조뿐 아니라 전체 진보운동과 노동운동 진영이 함께 광범한 정치투쟁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현재 여러 단체들이 연대해서 벌이고 있는 거리 선전과 서명운동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활동들이 더욱 확산되어야 하고, 지역에서 연대운동이 건설되어 홍보전,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영화 반대 투쟁은 경제위기 속에서 더 크게 몰아칠 신자유주의에 정면 도전할 중요한 투쟁 전선이 될 수 있다. 민영화의 폐해를 온 몸으로 겪고 있는 KT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 함께 연대하는 것은 철도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민영화 저지를 통해 커진 사회적 여론과 노동자들의 투쟁력은 이후 KT 재국유화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다.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서명운동 및 반대행동에 적극 참여하자.

숨겨진 용산참사의 진실을 파헤친 영화

‘두 개의 문’을 함께 봅시다.



3년전 새해 벽두부터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용산참사’를 기억하는가?

2009년 1월 20일, 용산지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철거민 5

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의 사망. 생존권을 호소하며 맘루에 올랐던 이들은 불과 25시간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내려왔고, 살아남은 이들은 범법자가 되었다. 철거민의 불법폭력시위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검찰의 발표, 공권력의 과잉 진압이 참혹한 사건을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부딪히는 가운데, 진실공방의 긴 싸움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유가족 동의 없는 시신 부검, 사라진 3,000쪽의 수사기록, 삭제된 채증 영상, 어떠한 정보도 하달 받지 못했다는 경찰의 증언… 과연, 그 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용산참사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진실을 드러내려는 용감한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이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케이티 노동자들도 이 영화와 함께 용산참사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보는 기회를 가져보길 권해본다.

kt 노민추를 제안한다

노민추는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의 약칭이다.

노민추는 8~90년대 전반까지 독재시대에나 활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 웬 뜬금없는 노민추? 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다. 87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으로 믿게 되었고 90년대 초반에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최고 20%까지 올라갔었지만 이후 20여년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대공세 속에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실상 제도정치권 일부에만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율은 현재 10% 이하로 추락하였다.

즉 상당수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파괴되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설사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kt노조도 예외는 아니다. 최대 5만3천명에 달하였던 조합원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만4천명 정도로 축소되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완전히 훼손되어 거꾸로 경영자총연합회(약칭 경총)에서 노사회합(노조무력화) 성공사례로 kt사례가 타 사업장에 오래 전부터 소개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KT노동조합의 선언과 강령에는 다음과 같이 KT노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KT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진보적 사회발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완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추구하고자 “투쟁하는 노동조합, 신뢰 받는 집행부, 주인 되는 조합원”의 기치아래 굳게 둉쳤다. 이에 KT노동조합은 신성한 노동의 가치가 정의롭게 실현되고 노동자의 인간적 존엄이 보장되는 민주복지사회건설을 향해 매진할 것을 염숙히 선언한다.』 [선언]

『1. 우리는 강인한 단결력을 토대로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과감히 투쟁한다. 2. 우리는 국가 신경망인 통신산업의 역군으로서

민족통신을 수호하며 건전한 민족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3. 우리는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사회운동 세력은 물론 전 세계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민주복지사회 건설과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강령]

조합원들에게 보여지는 현재의 KT노조 모습은 과연 어떨까?

노동자 조직인지 사용자 조직인지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선언과 강령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낙하산 체제를 찬양하거나, 고용노동부의 kt특별근로 감독 실시에 대해 경영의지를 꺾고 조합원의 사기저하와 업무마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까지 초래한다고 불법경영진을 비호하는가 하면,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위한 대포폰을 사장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아도 침묵하고, 노조 위원장과 조합간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끊임없이 짓밟고 있는 반노동자적인 보수정당에게 불법정치후원금을 제공하여 중앙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는 작금의 상황은 가히 조합원들이 어안이 병벙할 만하다.

노동조합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회사도 구렁텅이로 빠지고 노동자들은 노예신세를 절대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 상황에 비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함께 산에 올라가 욕이라도 퍼부어야되지 않을까? 자부별 삼삼오오도 좋고 지방본부별로 해도 좋고 형식과 명칭은 어떠해도 좋다. 노민추는 노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며 조합원들이 주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며 우리가 서로를 믿고 노민추를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우선 서로 의지할 소모임부터 출발해 보자!

kt 노동조합 11대 위원장 선거 무효소송 경과 보고

- 11대 중앙위원장 후보 장현일 -

지난 6월 21일 11대 위원장 선거 무효소송 첫 심리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작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진행된 11대 위원장 선거는 입후보가 좌절되었던 조일환씨가 두차례 제기한 선거무효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져 완전히 절차를 새롭게 끊어 치루어질 뻔 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인 조일환씨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석연치 않게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다른 후보들은 모두 사퇴한 채 기회1번 정윤모 후보만 놓고 친반을 묻는 지극히 파행적인 형태로 매듭되었다.

금번 선거무효소송은 본안 소송으로서 당시 선거에서 중앙위원장 후보였던 장현일, 임현재 후보와 지방본부 위원장 후보 등 13인의 후보가 공동으로 제기하여 진행되는 소송이다. 6월 21일 1차 심리에서는 불법 편법으로 진행된 지난 선거 과정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 당시의 중앙위원 1명, 선거관리위원 1명, 가처분 소송당사자였던 조일환씨 등 3명을 원고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건을 집중심리하였다. 그 결과 중앙위원과 선관위원에

대한 증인신청건은 채택이 되었고 조일환씨에 대한 채택건은 차기 심리로 넘겨지게 되었다. 차기 심리 기일은 8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본안소송과는 별도로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6월 14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노조 집행부 측에서 연기를 요청하여 7월 12일로 심리가 연기되었다. 가처분 심리는 1회정도만 하고 바로 판결을 하는데 만약 판결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집행부는 그 날짜로 모든 법적인 권한이 정지되므로 어찌 보면 본안소송보다도 실효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소송일 수 있다. 그 심리가 집행부측의 요청으로 연기된 것을 보면 법원 분위기로 볼 때 집행부측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음직하다. 여하튼 이런저런 심리가 진행될 수록 KT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얼마나 KT노조를 불법 탈법의 온상으로 만들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우리는 확신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 서상설 선배 정년퇴임식 스케치



지난 6월 22일 저녁 케이티송파지사 앞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올해 6월말을 맞아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된 서상설 선배님을 축하하기 위해 kt민주동지회 회원들이 자리를 만든 것이다. 당연히 축하받아야 할 정년퇴임이 어느덧 케이티에서는 죄스러운 일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 꿋꿋하게 정년을 지켜낸 선배의 모습은 너무도 당당해보였다. 그것은 그동안 민주노조 운동에 끊임없이 헌신해 왔던 서상설선배의 삶이 빛어낸 결과일 것이다.

● 고 오용철열사 추모제

지난 6.16일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고 오용철 열사의 16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오용철 열사는 개봉전화국에서 민주노조 활동을 전개하시다 구속까지 되신 바 있으며 석방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다가 운명하신 선배노동열사이다. 참가자들은 선배의 뜻을 이어서 케이티에서 다시 민주노조



를 반드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모아냈다.

